

(4)환경선진도시·센다이의 기획

센다이시 환경국 국장 츠보타 타다히로

저는 센다이시 환경국 국장 츠보타 타다히로입니다.

먼저 제 11 회 중일한 삼국지방정부세미나가 개최된 오늘 여러분에게 센다이시의 환경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센다이시는 자고로 “도지도(杜之都)”로 불리여 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역사와 풍토를 보유한 기초상에서 환경선진형도시의 건설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소개는 “녹색구입”을 중심으로 센다이시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노력과 환경에 대한 압력이 작은 상품을 구입한 등 재용을 포함합니다.

먼저 센다이시의 정황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센다이시는 400 여년이래 줄곧 일본 동북지구의 정치, 경제, 교통과 문화의 중심인 역사가 유구한 도시입니다.

현재 일본의 전부 약 1800 개의 시정촌 중에서 센다이시는 현(중국의 성에 대등함)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진 정령제정지구로 인구규모가 제 11위를 차지합니다.

센다이시는 동경에서 약 35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신간선고속열차로 96 분가량 걸리는 지리적위치상 수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국제교류방면에서 이번 세미나의 주최도시인 장춘시와 기타 해외의 7 개 도시와 국제자매도시결연을 하였으며 장춘시 및 이 7 개 도시와 정기적인 항공편을 개설하였습니다.

우리는 100 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인 동시에 센다이시의 서부는 광범위한 너도밤나무원생림이 있는 산악지대로 이 지대는 구릉지대를 통과하여 시구역과 동부전원지대와 이어집니다. 센다이시의 상징인 히로세가와청류는 시구역을 흘러지나 태평양에 흘러들어갑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센다이시는 “도지도(杜之都)”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고 이 또한 우리 센다이시 시민을 대표하는 칭호로 되었습니다.

이외에 귀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신선생도 센다이시의 동북대학에서 학습 생활하였었습니다. 센다이시는 반도체와 나미기술영역의 세계급 “특허”들이 모여있으며 지방기업들은 이를 산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일본제일의 칠석축제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센다이의 빛 축제”등 활동은 일년 사계절 모두 열리여 매년마다 일본국내외의 약 1600 만명의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센다이시는 일본의 고속성장기인 1962년에 “사람이 건강해야 하듯이 도시도 건강해야 한다”라는 구호를 제출하고 “건강도시”선언을 발표함으로서 이를 계기로 시민, 사업조직과 행정부문의 서로 협작하여 공동으로 도시건강을 수호하는 체제를 형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소개할 것은 상세기 80년대 안티-스키드 타이어의 보급으로 초래된 도로먼지공해문제입니다.

겨울철 센다이시의 눈은 많지가 않지만 로면에 쉽게 얼음이 끼기 때문에 당시의 대다수 차량은 겨울이면 모두 안티-스키드 타이어를 착용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길표면의 아스팔트가 금속에 의해 파괴되어 엄중한 먼지문제를 초래하여 “센다이사막”이라 불리였습니다.

그 시기 우리 센다이의 시민, 행정과 보도기관은 단결협력하여 일본전국에서 최초로 “안티-스키드 타이어탈리운동”을 벌려 최종으로 안티-스키드 타이어의 사용을 현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센다이 환경선진도시 시민운동의 첫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센다이시의 환경기본기획인 “도지도(杜之都)환경계획”의 지도하에 시정부에서 취한 조치와 시민과 사업조직의 상호협력추진초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는 1997년에 제정한 “도지도(杜之都)환경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센다이시의 미래도시경상을 “도를 학습하고 도와 공생하는 도시”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이 기획의 종지는 순환성사회와 지속적발전의 사회를 건설하고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시민과 사업조직을 주체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 기획의 진전을 추동하고 이러한 고려로 우리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건설”하는 건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민과 사업조직의 활동을 추진하려면 행정부문에서 솔선적으로 환경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추동하에 1999년 센다이시는 첫 정령제 정도시로서 ISO14001의 인증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우리는 센다이시의 독자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인 “신센다이시환경행동계획”을 제출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시정부의 업무사용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효과로 보면 계획

대로 2004년에 1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하고 2008년에 13000톤을 감소하였으며 이로 하여 약 6억엔의 경비를 절약하였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산생한 실제효과와 일본의 전국온실가스감소 목표인 2050년에 15%감소의 목표와 비교할때 우리가 매년 1%의 감소를 실현한다면 센다이는 일본국가 중기목표보다 일년 앞서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의 구체적인 조치로 우리 모두가 환경을 관심하고 사무실에서 불필요한 조명용전등을 꺼버리며 소학교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사용을 추진하고 저공해자동차를 사용하는 등 계획을 대폭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소학교 등 46개 공공시설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인입하여 그 수량이 전국의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저공해자동차로 보면 약 10년전부터 우리는 공용버스에 혼합동력형 버스사용을 추진하여 현재 센다이시의 곳곳에서 혼합동력형 버스를 볼수 있습니다.

그외에 센다이시의 중소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환경보호행동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웃사진은 소학교에서 거행한 넝쿨식물제작“녹색커튼” 활동입니다.식물의 잎으로 여름의 햇빛을 차단하여 무더운 여름철을 편히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조치의 일부로 제가 2004년 센다이에서 개최한 “센다이제 1기 녹색구입세계회의”의 정황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세계 38개 국가와 지구의 1000명을 넘는 인사들이 참석한 센다이시와 일본녹색구입네트가 주최한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가 녹색구입에 대한 고도로 되는 주목으로 인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회의는 과별토론과 조별토론 등 의정을 경과하여 최종으로 녹색구입의 의의와 작용을 확인하였으며 국제협력을 강화할 중요성에 대해 일치한 인식을 달성하였습니다.

회의는 마지막으로 <녹색구입센다이선언>을 발표하고 “국제녹색구입네트(IGPN)”의 창건을 제창하였으며 이 국제조직을 통하여 녹색구입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IGPN(센다이시장이 이 조직의 발기자의 일원입니다.)은 2005년에 창립되어 세계각지의 행동실례와 최신정보를 책임지고 수집하며 그 발신지역에 근거하여 테트매점을 건립하는 기구입니다.

금년 10월 한국 수원시에서는 제3기 녹색구입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됩

니다.센다이시도 이번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며 회의에서 센다이시가 지금 까지 이방면에서 취한 조치들에 대해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센다이시에서 “녹색구입”의 개념은 이미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정책의 기본으로 그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반 “녹색신조치정책”의 지도하에 환경보호자동차의 구매를 대상한 보조제독 실시되고 있으며 혼합동력자동차의 생산이 판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국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환경보호형상품을 구매하는 녹색구입은 아주 효과가 있는 조치입니다. 바로 지역전체 또는 전세계가 행동하여야만 지구의 환경압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간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방도시간의 협력체제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우리 센다이시는 우리의 국제자매도시인 장춘시,광주광역시 및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중일한삼국지방정부의 각도시의 협력하에 녹색구입을 추진하고 시장의 녹색화를 추진할 것이며 에너르기 절약과 환경보호사업에 힘을 다하여 우리모두가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강대한 역량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